

# 새봄 섬세함과 신선함 더해진 '백조의호수' 속으로

### 수석무용수 황혜민과 새롭게 호흡 맞추는 이동탁 연기 기대

유니버설발레단(UBC) 수석무용수 황혜민(38)·이동탁(27)이 3년 만에 돌아오는 고전 발레 '백조의 호수'에서 첫 호흡을 맞춘다.

황혜민은 이 발레단의 또 다른 수석무용수인 남편 엄재용(37)과 10년 넘게 파트너로 호흡을 뽐내왔다. 이번 시즌 역시 엄재용과 커플로 나서며 안정감을 준다. 또 다른 공연 날에는 이동탁과 짝을 이뤄 신선함을 더했다.

유니버설발레단뿐 아니라 한국 발레계의 간판 중 한 명인 황혜민은 섬세함으로 이름이 높다. '백조의 호수'에서 낭만적인 백조 오데트와 강렬한 흑조 오델의 1인역을 극적으로 소화하는 이유다.

호남형의 강렬한 인상인 이동탁은 외모와 달리 내면은 세밀한 정서로 가득하다. 오데트를 사랑하지만 오델에게 유혹당한다. 발레 기술은 물론 연기력까지 갖춘 두 사람의 조합인 만큼 가장 드라마틱한 '백조의 호수' 커플이 탄생하리라는 기대는 괜한 것이 아니다.

황혜민은 "재용씨와는 너무 오래해서 익숙해졌는데 새로운 에너지를 두른 동탁씨와 함께 하니 내 에너지 역시 새로워져라"며 눈을 빛냈다.

2012년 지그프리트를 처음 연기한 이동

탁은 "노련한 재용이 형의 손길이 묻어 있는 흔적을 느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다"며 즐거워했다. "혜민 누나와 파트너(2인무)를 할 때 누나가 움직이면 이렇게 해줘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선생님이 없이 몸으로 직접 익히게 되는 배움이 있더라며 놀라워했다.

황혜민에게 감사한 마음도 크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면 마이너스를 안아야 해서 불안한 부분이 생기는데 열심히 맞춰주셔서 고맙다"는 것이다. 황혜민은 "재용씨랑 할 때보다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신경을 쓰려고 했다"고 전했다.

본인도 이동탁 때문에 신선함을 느낀다. "그간 익숙해져서 있고 있던 부분이 다시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황혜민, 이동탁 조합은 원원인 셈이다.

'백조의 호수'는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다. 차이콥스키의 유려한 음악과 마리우스 피티파·레프 이버노프의 오리지널 안무가 인상적이다. 1895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에서 세계 초연했다.

유니버설발레단은 1992년 10월 30일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이 작품을 러시아 정통 버전으로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유병현 예술감독 개정 안무로 이번 무대에 올린다. 오데트 공주

와 지그프리트 왕자가 행복한 결말을 맞는 해피엔딩 판. 왕자가 공주를 구하기 위해 싸우다 죽는 비극 버전이 있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이번 시즌에 비극을 택했다. 왕자가 죽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람의 몸이 아닌 새의 깃털을 잡듯 조심스럽게 세밀한 연기를 선보이는 이동탁은 "비극 버전의 여운이 길다"고 했다. 황혜민 역시 같은 마음이다. 하지만 둘 모두 "마지막에 두 사람이 함께 살아 있는 자체만으로 좋기도 하다"며 웃었다.

오데트는 우아하고 서정적인 고녀. 흑조는 강렬한 유혹의 기운으로 뒤덮여 있다. 상반된 역할을 한 작품에서 번갈아가며 연기해야 하는 만큼 '백조의 호수'는 발레리나에게 최고의 작품으로 통한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다. 선과 악의 뚜렷한 경계를 오고 가는 연기를 위해서는 섬세한 표현력은 물론 탄탄한 발레 기본기와 고난도의 테크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시즌에는 불소야발레단 수석무용수 사문 추진(31)이 9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눈길을 끈다. 노보시비르스크 안무학교 졸업 후 2008년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 2007년까지 발레단의 주요 레퍼토리에서 활약한 무용수다. 파트너 예카테리나 크리시노바(31) 역시 불소야발레단 수석무용수다.

황혜민·이동탁, 추진·크리시노바를 포함해 총 여섯 커플이 주역을 맡는다. 황혜



이동탁과 황혜민

민·엄재용, 강미선·콘스탄틴 노보셀로프, 홍향기·강민우, 중국의 예페이페이·뮌헨 버버리안 국립발레단의 퍼스트 솔리스트 막심 사제고로프다. 솔리스트 홍향기와 예페이페이는 새로운 백조로 처음 무대에 오른다. 29일~4월3일 유니버설아트센터 러닝타임 2시간30분(공연 전 문헌속 단장 해설과 인터뷰 1회 포함), 1만~10만원 유니버설발레단 070-7124-1737 /정해은기자

## 송천도서관 4월 12일~ 5월 31일 '역사 속 진짜 호남이야기' 강좌

송천도서관은 오는 4월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서관 강의실 2층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역사 속 진짜 호남 이야기' 강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기록의 역사적 사실과 함정-역사기록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실과 오류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생은 선착순 7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신청은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281-6510 /정해은기자

## '동의보감' 초간본 경매 나와

동양 최고의 의서 '동의보감'이 경매에 나왔다. 코베이 경매는 오는 29일 여는 제 195회 삶의 흔적경매에 국보 제 319호로 지정된 판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의보감'이 출품되어 시작가 1000만원에 경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베이경매측은 "이 '동의보감'은 잡병편(雜病篇) 권지육(卷之六) 1책으로, 1600년대 초반 내의원에서 인쇄한 목활자본"이라고 밝혔다.

'동의보감'은 1610년(광해군 2) 허준이 지은 의서(醫書)로 조선과 중국에서 유통되던 의학 서적과 임상지식을 취합해 각종 질병의 치료법을 정리한 책이다. 코베이 경매는 "이번 경매에 출품된 동의보감 초간본은 우리나라 의학과 고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소개했다. /정해은기자



무주군의 아름다운 절경을 주제로 30여점 선보여

##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무주사계사진전' 개최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성태)의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이달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비발디 사계 선율과 함께하는 무주 사계 사진전(주최: 무주 사진작가협회,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박물관 1층 미술관에서 운영한다.

이번 무주 사계 사진전은 태권도원의 풍경을 비롯해 덕유산의 사계, 적상산 단풍길, 구천동 계곡 등 무주군의 아름다운 절경을 계절별 주제로 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전시장 내에는 멋스런 사진들과 함께 유명 클래식 비발디 사계를 배경 음악으로 감상할 수 있어 공감각적으로 풍성한 사진전을 즐길 수 있다.

무주 사계 사진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태권도박물관 1층 미술관(갤러리카페)에 상설 전시되어 있으며 사진 촬영도 동 시간대에 가능하다. 태권도원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무주와 태권도원에 대한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느끼며 마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태권도원과 무주를 함께 알릴 수 있는 사진 전시회를 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전시회가 무주와 더불어 태권도원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사진전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기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댄서 판권현준·국악인 박애리

## 2016 빛날 '도전 한국인' 선정

댄서 판권현준(37)·국악인 박애리(39) 부부가 2016년을 빛낼 한국인으로 선정됐다.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8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도전한국인 대상'에서 공연예술부문 '2016년을 빛낼 도전 한국인상'을 받았다.

판권현준과 박애리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에서 화려한 춤과 가창력으로 현란한 퍼포먼스를 완성하며 전종과 현대의 만남을 표현했다. 이들은 "열심히 해서 더욱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공연예술가로 발전하겠다"며 "전종과 현대가 하나 되는 무대로 세계에서 멋진 공연예술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 남원 춘향제에서 함께 춤을 춰요

모두 함께 '사랑의 춤판'

미스 춘향과 무대위에서

올해 제86회 춘향제에서는 전국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춤판을 만든다. 작년 춘향제에서 각광받은 "남원춤"을 "남원춤 시즌II 춘향 사랑춤"(약칭 "춘사춤")으로 전환하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춘향제에서 춤을 추는 사랑의 춤판을 개최할 계획이다.

제86회 춘향제에서는 문화도시사무국과 무용협회남원시지부와 함께 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하는 춤판 한마당을 만들기로 하고 남원춤 시즌II "춘향 사랑춤"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광한루원을 비롯한 남원의 다양한 장소에서 동영상 제작하여 SNS 및 유튜브 등에 업로드 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춘사춤(남원춤 시즌II "춘향 사랑춤")은 주간 4회 및 야간 길놀이로 더욱 확장 편성할 계획이며, 춤판이 시작과 끝 사이에 특별 이벤트를 도입하여, 연인 및 가족들이 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미스 춘향과 함께하는 춤판 무대



연인 및 가족들이 무대에서 마음껏 뛰어 놀도록 기획된 '춘사춤'

를 만들어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랑의 춤판에서는 화려한 꽃가루와 폭죽을 춤판 사이사이에 첨가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며 춘사춤에 어울릴 수 있는 노래를 도입하였다.

또한 표현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부여하고, 문화도시사다운 예술성을 부각시켜

서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랑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월13일부터 4일간 열리는 제86회 춘향제는 "사랑"이라는 테마를 강화하고, 전국민 및 전 연령층이 쉽게 접하고 재미있는 축제로 변신을 꾀하고 있으며, 오작교 실경무대를 환상적으로 조성하여 작년과 차별화된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21일>

<p><b>▷쥐띠</b></p> <p>46년생: 남성은 여성을 권위적으로 대하기 쉬운 운이다. 60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 72년생: 동기간에 서로 원할 수 있는 운. 84년생: 다른 사람과의 시비가 있으니 자중하며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p>	<p><b>▷소띠</b></p> <p>49년생: 큰 움직임이 피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매사에 주의하면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73년생: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p>	<p><b>▷호랑이띠</b></p> <p>50년생: 매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운. 62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사게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4년생: 급하게 결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니 주의하라. 8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 좋은 기회가 온다.</p>	<p><b>▷토끼띠</b></p> <p>51년생: 크고 멀리 보아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손재수가 있는 운이니 타인과의 화합에는 좋은 날이다.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이니 주의하라.</p>
<p><b>▷용띠</b></p> <p>52년생: 성급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면 후회할 상황이 발생하니 인내하고 기다려라.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라. 76년생: 주위의 질투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88년생: 첫 사람의 인정을 받는 운.</p>	<p><b>▷범띠</b></p> <p>53년생: 계획의 변동, 변화는 실패를 불러오니 주의하라. 65년생: 당차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쉽게 신뢰를 얻을 것이다. 77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9년생: 늦은 오후에는 운이 막히게 되니 무지한데 움직여라.</p>	<p><b>▷말띠</b></p> <p>5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이다. 66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할 요하는 운이니 생각하고 행동하라.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이 좋은 날이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p>	<p><b>▷양띠</b></p> <p>55년생: 매사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7년생: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9년생: 인덕을 버리지 마라. 9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활기왕후 하다가는 시비를 면치 못한다.</p>
<p><b>▷원숭이띠</b></p> <p>56년생: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68년생: 대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시리에 치우쳐 행동하면 화가 따르니 조심하라. 80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9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p>	<p><b>▷닭띠</b></p> <p>57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니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하라.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운이다. 93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작하라.</p>	<p><b>▷개띠</b></p> <p>48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심한 운. 59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70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82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p>	<p><b>▷돼지띠</b></p> <p>47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니 실수를 주의하라. 58년생: 타인에게 오해당할 수 있는 운이니 지나친 호의나 주의를 연행할 필요가 없다. 71년생: 감의 모습보다는 내실을 치중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p>